

전남·경남 '남해안 시대 실현' 12개 과제 연대·협력

김영록 전남지사·박완수 경남지사, 경남서 상생발전 협약식 남해안 종합개발청 신설 등...광역지자체 첫 협정협의회 구성 합의

전남도와 경남도가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시대' 실현을 위해 남해안 종합개발청 신설, 우주항공산업업벨트 조성,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등 현안에 연대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또 향후 협력사업을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완수 경남지사는 18일 경남도청에서 첫 상생발전 협약식을 개최하고 남해안 개발, 우주항공, 관광·문화·체육, 기후환경, 농업 등 5개 분야 총 12개 협력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 협력과제는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남도지사가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남해안 종합개발청 신설을 비롯해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조성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공동 유치 ▲이순신 장군 순정지 순례길 프로젝트 추진 ▲이순신 축제 연계 개최 등이다.

또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루트 개발 ▲유망 청년작가 교류 전시회 ▲104회(전남), 105회(경남)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남해안 엑스포 상호협력 ▲2026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협업 방제 ▲원예식량 작물 신제품 개발·육성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 두 지역 협력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전남도와 경남도가 함께하는 행정협의회 구성에 합의하고, 구체적 업무 범위와 조직 등에 대해서는 실무회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서 발전의 속도가 다르고, 수혜를 가장 적게 받은 지역이 전남과 경남"이라며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양 지역이 공유하고 있는 남해안, 지리산 등 관광자원의 개발과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 뜻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이 경남과 전남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한민국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끈 전남과 경남은 남해안을 따라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면서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 오고 있다"며 "남해안 종합개발청 신설, 우주항공 산업벨트 등 두 도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지역 핵심과제가 이번 합의문에 담긴 만큼, 앞으로 대한



손에 손잡고 "상생 발전" 김영록(오른쪽 일곱 번째) 전남지사와 박완수(/ 여덟 번째) 경남도지사가 18일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전남·경남 상생발전 협약식'을 마치고 실·국장기림촬영을 하고 있다.

민국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시대를 활짝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자치단체 간 지방정부조합이 국내에는 만들어진 적이 없는데, 전남과 경남이 함께 행정협의회를 만들어 두 자치단체가 상생 발전을 위해 공

동 작업하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 고정익동(전투기 생산시설), 우주센터 등을 둘러보고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상생을 모색하기도 했다.

전남도와 경남도는 협약 이전에도 탄소소재벨트 및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사업 공동 추진, 남도2대교 건설, 여수-남해 해저터널 국가계획 반영, 경전선 고속철도 구축 등 가시적 협력 성과를 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무안공항, 서남권 대표 관문공항으로”

전남도, 활성화 총력...국제 정기선 유치 최우선 추진

전남도가 무안공항 활성화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오는 2025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으로 충청 이남 지역민들의 접근성이 커지는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대표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전남도 전략이다.

특히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공항 통합·이전이 장기 지연되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무안공항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만큼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와 맞물려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공항 통합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남도는 이같은 활성화 전략에 따라 단기 과제로 무안국제공항 국제 정기선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는 베트남 2개 노선이 운항 중으로, 5월에는 일본 나고야(대한항공), 일본 기타큐슈(하이 에어) 운항이 예고된 상태다.

전남도는 여기에 제주항공, 대한항공을 상대로 항공기 운항 재제정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의사를 전달하고 신규 국제 정기선 노선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주 노선의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지역 안배 슬롯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

슬롯은 특정 시간에 특정 항공사가 할주로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즉 항공사별 할주로 사용 가능

한 시간을 말한다.

공항 기반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관리동 신축, 여객정사 새단장을 지난해 말 완료한 데 이어 국제 중장거리 노선 취항이 가능한 활주로 연장 사업도 오는 2025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남도의 이같은 방침에는 민간공항 이전이 지연되면서 지난 2007년 11월 개항 이후 15년이 넘는 기간이 흘렀음에도 서남권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무안공항의 위기감을 반영,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충주국제공항의 경우 충남, 충북, 대전 등 범충청권 시·도가 합심해 300만 명이 이용하는 공항으로 성장한 만큼 무안국제공항도 광주를 포함한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육성한다는 공감대를 마련할 시기라는 얘기다.

전남도는 이에따라 무안공항으로의 광주 공항 이전도 서둘러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벌일 계획이다. 광주·전남·무안이 지난 2018년 8월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무안국제공항을 국토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광주 민간공항은 여전히 유휴지 않고 있다. /김지우 기자 dok2000@

광주시, 지역 대학 '글로벌대학 30' 선정 지원

강기정 시장 '월요 대화' 지방대 활성화 등 논의

광주시가 대학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해 교육부 '글로벌대학 30'에 다수 대학이 선정되도록 힘쓰기로 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전남 시청 다목적홀에서 '월요 대화'를 열어 교수, 교육부와 산학협력 기관 관계자들과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광주'를 주제로 지방대 활성화, 시민 교육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방정부의 교육 부문 위상 변화, 지방 교육 자치를 이끌어갈 거버넌스 역할 등을 강조했다.

광주형 기초학문연구센터 구축, 교육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벌 대학 사

업 관련 협의체 구성 등도 제안했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은 발제에서 "RISE에서 대학을 육성할 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에서는 지역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부서와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지역 대학은 특성화 모델을 만들어 대학 간 역할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주시는 이날 공고된 교육부 주관 지역대학 혁신 사업 '글로벌대학 30'에 대비해 대학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글로벌대학 30은 과감한 혁신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 30개 지방대를 뽑아 학교당 5

년간 1천억원을 지원하는 대형 사업이다. 올해 10개 안팎, 내년 10개 안팎, 2025년과 2026년 5개 안팎 대학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직후 신설한 인재육성과 대학협력팀, 전문기와 공무원 9명으로 구성된 지역대학 혁신자문단 등을 통해 공모사업 신청, RISE 사전 준비, 발전·혁신 방안 마련, 대학-지자체-산업계 협력사항 발굴을 지원한다. 대학 기획처장 등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대학혁신 실무협의체도 이날 중 가동된다.

광주시는 하반기 조직개편에서 대학 지원 전담 조직을 확대해 교육부와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들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남해안권 드론 활용' 총괄체계 구축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 선정...무인 이동체 서비스 시장 창출

전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공모에 선정돼 2025년까지 남해안권에 드론을 활용한 실증·운영 총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총사업비는 188억원으로 전남·부산·경남을 연계한 초광역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해 무인 이동체 서비스 시장 창출과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융복합 미래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3개 시·도는 공동으로 2025년까지 적조 및 환경감시, 양식장 점검, 섬 간 물품 배송, 해양쓰레기 감시 등 드론을 활용한 실증을 중점 수행한다. 또 공동 실증사업을 위해 ▲이미 구축된 장비의 성능

개선과 신규 연계 장비 구축을 통한 통합관제 및 교차실증 기반 마련 ▲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및 기술 지원 ▲무인 이동체 인력 양성 체계 구축 및 지원 등도 추진한다.

3개 시·도는 사업 추진을 통해 실증·운영 총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무인기 설계 시 표준 도출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최적의 통합 운용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드론 활용을 위한 공공·민간 부분 수요처를 대상으로 드론 서비스 시장을 발굴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고용 창출 등에도 힘쓸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해남군

“해남에 기부하세요 행복이 커집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현재 주소지 외 출신지(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기부자 개인(법인불가)
- 기부처 주민등록상 본인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 기부액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_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 답례품_ 기부액의 30% 범위내에서 지역특산물 선택 가능
- 기부금 사용처
 - 주민복지 증진사업-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 참여방법
 - 온 라 인_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 대면접수_ NH농협
- 문의 해남군 재무과 ☎ 061)530-5974, 5295